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마가복음 9:14-29

요절: 마가복음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주면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으시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영광스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과 십자가를 영접하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영광의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 현재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능치못함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9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8장 후반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얼마남지 않은 여름수양회에서 주제강의로 듣고자 우리 7부에서 아주 중요하신 이광종 목사님께서 은혜스럽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아니됩니다~’ 항변을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심각해졌습니다. 제자로서 이제는 죽어라고 고생만 해야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동안 수제자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혔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자 그동안 쌓은 것이 모두 허물어진 것 같고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었다는 것은 ‘transfiguration’ 으로서 본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래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본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떠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옷을 희게 하기 위해서 옥시크린, 산소표백제 스파크, 때가 쏙~ 비트 등 이런 저런 표백제를 씁니다. 그런데 옷의 희기가 이런 표백제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요한은 후에 밧모 섬에서 영광의 주님을 환상 가

운데 보았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계1:13-16)”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지만 슬프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를 부담스러워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이 어렵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이 예언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확실히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두 다 구속역사를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다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합니까? “주여! 주님은 진정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희도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 산에다 별장 짓고 아무 십자가도 없이 걱정도 없이 신선노름 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죽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시청각 교육까지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오직 영광에만 이르고 싶은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간 직장에서 유럽출장을 갔는데 음식도 입에 맛있고, 날씨도 좋고, 한국과 다른 신기한 경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십자가도 없이 직장에서 보내주는 출장이라 물질도 안들어가고 해서 일주일이 아니라 일년은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심하셨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해 하늘에서 오리지날 사운드 트랙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발 헛소리 그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듣지를 안했습니다. 오직 고난없이, 죽으심 없이 영광에만 이르고자 하는 자기생각만을 고집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도 드러났습니다. 아마 잠꼬대를 하더라도 ‘십자가는 싫어~’ ‘고난은 싫어~ 남남’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천성적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아무런 고난과 시련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도 가능하면 작고 가벼운 십자가만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인생만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자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내면을 넓히기도 하시고, 말씀의 종이요, 기도의 종으로 연단하기도 하시고, 정금같은 믿음으로 종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세상으로 향한 소망에서 하늘나라 소망을 갖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하고자 하는 자기생각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고난과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고난과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부활영광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다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무식한 놈들. 너희가 무슨 재주로 귀신을 쫓아내? 꼴 보기 좋다” 그러자 제자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는 당신들은? 똑똑한 당신들이 한번 귀신을 쫓아내 보시지.” “뭣이 어째?” 이렇게 서로 욕신각신하며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O unbelieving generation” 하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지식만 자랑했지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3제자들에 대한 시기심으로 마음이 시끄럽고, 과거의 경험만 의지했지, 현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수없이 좌절을 맛보면서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무리들도 발을 동동 구르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귀신들린 아이를 두고 모든 사람이 깊은 불신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불과 물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좋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

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사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제자들은 못했을까라도 예수님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야 했습니다. “주여, 저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발 고쳐 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 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필사적으로 간구해야 했습니다. 개 취급을 당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한 맺힌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절박감이 없고 스피릿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예절이 참 바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부담 주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만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지만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도와주세요” 이 말은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시고, 안 돼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초등학생이 수학선생님 원장인 믿음목자님이나 아버가일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 풀 수 있으면 한 번 풀어 보세요. 그러나 못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 하십니까?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그를 벼락같이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반신반의하는 자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 100%의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하면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입니다. Everything. 예수님은 항상 everything, 모든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something, anything 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everything 이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심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마지막 독일과의 경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피파 랭킹 57위 한국이 1위 독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스웨덴에게도 지고, 멕시코에게도 졌는데.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독일을 물어 뜯기라도 하고 나오면 다행이지”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하면서 아예 경기를 보지도 않고 자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에서 독일이 월드컵 본선에서 떨어진 것은 80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월드컵의 기적중의 2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독일이 브라질을 7:1로 이긴 것이 가장 쇼킹한 사건이고, 그런 독일을 우리가 2:0으로 이긴것이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진대 하물며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일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절을 다시 외워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복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잘 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

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 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칭얼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민11:20). 이때 모세가 불신적인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이 보행자만 60만명이온대 --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책망 하셨습니까?) “여호와와 손을 짚어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민11:23)” 그리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을 덮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출애굽 때나, 홍해 바다를 가를 때나, 200만명에게 고기를 먹일 때나, 조금도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일때나, 칠병이어로 4천명을 먹일 때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왜 월드컵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이번에 월드컵 축구 선수 중에 기성용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9명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틈나는 대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골키퍼 조현우 선수도 믿음이 좋은 선수라고 합니다. 강팀들의 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동료들에게 “포기하지 마”를 계속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거미손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와 팔이 짚어졌느냐?’ 외치며 수많은 슈퍼세이브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최우수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골키퍼 3명 중에 가장 이름 없는 third man이었지만 하나님이 일약 그를 월드컵스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24절을 봅시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반신반의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불신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100%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말로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I do believe.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저의 능력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14,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한 그것을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을 아십니다. 이를 채워 주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기도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가 최선의 방책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마귀의 문제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어떤 마귀의 권세도 파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케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분이 기도는 말씀을 길게 할 필요가 없다, 기도는 자신이 직접 무릎을 꿇고 해보야 깨닫는 것이지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해서 이만 줄이립니다. 대신 스코틀랜드의 믿음의 영웅 존 낙스가 말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이 더 강하다”고 이 한마디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민족보다 더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고난과 십자가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동역자요 성숙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수양회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7부가 시온성으로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합심하고 동역하는 역사를 힘써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능치못함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